

호남대-동신대-광주대 RISE사업단 업무협약

지역 사립대 초광역 동반성장 '맞손'…'5극 3특' 부응

광주·전남 사립대 연합체계 구축…지역 혁신 성과 공유
초광역 공동프로그램 개발·리빙랩 기반 지역 문제 해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광주·전남 초광역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3개 대학 RISE사업단은 7일 오후 제주에서 '지역 혁신 기반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9일 교육부 장관 주재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초광역 5극 3특' 발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5대 초광역권(5극)과 3대 특별자치권(3특)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일자리·경주'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신대 등 3개 대학은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과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대학 RISE 사업단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초광역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 △리빙랩(Living Lab) 기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추진 △RISE 사업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공유 대학'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개 대학은 각 대학이 보유한 특성화 강점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한편,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대학은 각 대학이 보유한 특성화 강점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한편,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3개 대학 RISE사업단은 7일 제주에서 '지역 혁신 기반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학 간,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 정주로 이어지

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

야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기별 성과 공유회를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3개 대학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대동문화재단 7대 운영이사장에 이용범 대표

"무한한 영광...메세나 가치 구현에 최선"

취임식 내달 3일 광주홀리데이인호텔서



대동문화재단 제7대 운영이사장에 이
용범(㈜프로젝트 대표)이 취임한다.

7일 (사)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에
따르면 제6대 김성훈 이사장의 임기가 만
료됨에 따라 이용범(㈜프로젝트 대표)(사
진)가 제7대 운영이사장으로 추대, 오는 2
월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용범 이사장은 방산업계의 대부로(㈜
프로젝트, 쥬음토닉스, 쥬아이텍산업개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굴지의 대
형 방산 프로젝트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립골프협회장, 한국산업
단지경영자연합회장과 대동문화재단운
영이사회 부이사장, 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대동전통문
화대상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활동 및 활발한 사회활동은 물론, 문화에
술진흥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이용범 이사장은 수락 인사
말을 통해 "대동문화재단운영이
사회는 대동문화재단의 운영
을 지원하는 메
세나 조직으로
2007년에 창립.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이사진으
로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훌륭한 조직의 이사장으로 취임하
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
난 이사장님들의 송고한 뜻을 받아들여 여

러 이사들과 함께 대동문화재단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조상열 대표이사는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국내 대표적인 민
간단체이다. 재단은 운영이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통문화지킴이로서 소임을 다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임 이용범
이사장님은 지역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
이기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동문화재
단의 제7대 이사장직을 맡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취임식은 오는 2월 3일 오후 6
시, 광주홀리데이인 호텔 별관 연회장에
서 열린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청사 소쇄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농업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담양군, 청년 농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

영농 현장 애로사항 등 현실 지원책 등 나눠

담양군은 최근 청사 소쇄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농업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철원 군수는 "청년 농업인은 담양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미래 그 자체다"며 "오늘 나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초기 정작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영농정책 개선 방안, 스마트팜 활

동양=조성웅 기자 jnnews@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의 승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

광주지방보훈청, 보훈단체장 등과 신년 참배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의 승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일 광주지방보훈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광주 보훈단체장, 광주 보훈요양원장 등 보훈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년 참배는 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및 4·19혁명기념탑,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화와 분향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수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

△윤광민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홍연회 광주 남구 서기관

봉사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왼쪽)와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가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을 기탁하며 세대와 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에 솔직한 봉사를 인정받았다.

7일 인사혁신처 등

에 따르면 홍연회 국장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

장과 함께 포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33년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 10년간 민관협력 중심의 따뜻한 복지 남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복지 사업의 평화로운 전진하는데 노력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민간의 힘을 결집한 뒤 5억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양정부와 광주시 주관 각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5억원에 달하는 29건의 사업을 추진, 돌봄 이웃 5000여명에게 주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중심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복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복지관 3개소 설치, 보건복지부 통합의료 복지 시 행 시범기관 선정 등을 추진해 복지 분야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홍연회 국장은 "주민들 모두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내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

전남 지역 어르신과 농업인 단체가 새 해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가 각각 성금을 기탁하며, 세대와 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에 연대의 온기를 전했다.

전남도는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75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6 신년인사회 기탁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근 사무처장, 정양수 전남연합회장을 비롯해 22개 시군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전남연합회가 도내 시군

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 1600곳에 '이웃사랑, 나누면 행복!' 모금함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으로,

22개 시군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광선 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사일반 뜻을 모아준 어르신들의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꼭 필요한 지역 어르신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른다운 노인'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도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성금 300만원을 전

달했다.

성금은 전남도회 임원진이 마련한 기금으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돋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새농민회 관계자와 김현미 전남도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성열 전남도회장은 "농촌과 농민도 쉽지 않은 시기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과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7일 인사혁신처 등

에 따르면 홍연회 국장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

장과 함께 포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33년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 10년간 민관협력 중심의 따뜻한

복지 남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복지 사

업의 평화로운 전진하는데 노력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민간의 힘

을 결집한 뒤 5억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

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양정부와

광주시 주관 각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5억원에 달하는 29건의 사업을 추진,

돌봄 이웃 5000여명에게 주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

장 중심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복

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복지관 3

개소 설치, 보건복지부 통합의료 복지 시

행 시범기관 선정 등을 추진해 복지 분야